

한라시론



유 동 현
진로·취업컨설팅 편집장 대표

평상심에서 결정하자

조금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늘 듣게 되는 방송이 있다. 이 방송을 듣게 되면서 이 분에 대해서 검색해보았다. 자칭 '깨방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쩔 그리 말을 맞팔나게 하는지, 재치만점이다. 목소리 자체가 생기가 넘치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센서가 아주 뛰어나다. 그냥 평범한 내용인데도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몇 번을 듣다 보니 이젠 자연스럽게 애정자가 됐다. 그리고 이

진행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서 더 좋아하게 됐다. 지금은 엄청 생기발랄한 모습이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슬럼프를 겪었다. 20대 때는 걸그룹 멤버였다고 한다. 걸그룹에 별 관심이 없는 나인데도 그룹 이름은 들어봤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걸그룹에 이 멤버가 들어가고 보컬자리 경쟁이 생겼나보다. 그런데 경쟁 상대는 상당히 뿔뿔이 있는 멤버였고, 이분은 그냥 평범한 배경이었는데도. 당연히 둘의 갈등이 커지면서 둘 사이에는 금이 가고, 다른 멤버까지도 상대방에게 불으면서 홀로 왕따가 되다시피해서 나오게 됐다고 한다. 지금은 과거의 우울함, 대인기피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한다. 지금은

본인 생애 중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구독자도 32만명을 넘었다. 라디오 진행자가 되어서 이런 저런 사람을 만나다보면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힘듦도 다 공감해 줘야 한다. 본인이 겪은 어려운 나날들이 이분을 더 야무지게 연단했다. 힘들었던 시절의 경험들이 최대 자산이 된 것이다. 현재 밝은 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팀을 떠날 때도 침착하게 잘 대처한 것 같다. 이분과 경우는 다르겠지만, 지금이 순간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때려쳐야지!' 하는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갖고 사는 분들이 많을 줄 안다. 때려침에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 어떤 경우에

도 순간적으로 '욕'하는 감정에 의해서 그만두지 말 것을 권한다. 사람이 마음 조석으로 변한다고 한다. 강도가 센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감정의 후에 빠져서 급하게 결정했다가 후회하게 된다. 흥분되거나 힘들거나 화나는 등 감정이 격양됐을 때 말고, 진정됐을 때 현재 상황을 찬찬히 생각해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누군가 옆에 의논할 상대가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해 본다면 이런 감정에 치우친 성급한 결정을 막을 수 있다. 평상심인데도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하지만 조금만 잠는다면 이런 위기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차분히 생각해서 결정하자. 평상심일 때 결정하자.

사설

고령층 접종 동의 너무 낮아 걱정된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주저하거나 꺼리고 있는 것을 우려해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동의서 접수 기한이 25일까지지만 앞으로 계속 백신 접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물론 나이 불문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입증된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2건)도 나와 충분히 그럴만하다. 2건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례다. 다행히 현재는 2명 모두 치료가 끝나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때문에 어르신들이 지레 겁을 먹고 백신 접종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얻는 기대이익이 부작용보다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기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장한다. 그런데 백신을 맞겠다는 어르신들의 접종 동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다.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백신 접종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

작용 등을 우려해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동의서 접수 기한이 25일까지지만 앞으로 계속 백신 접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물론 나이 불문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입증된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2건)도 나와 충분히 그럴만하다. 2건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례다. 다행히 현재는 2명 모두 치료가 끝나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때문에 어르신들이 지레 겁을 먹고 백신 접종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얻는 기대이익이 부작용보다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기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장한다. 그런데 백신을 맞겠다는 어르신들의 접종 동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다.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백신 접종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

지역경제 불황 현실화... 올해가 더 걱정

제주경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황의 늪에 빠져들며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취약계층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실물경제 지표상 드러난 지역경제 침체 여파에 막혀버린 수입으로 최소 생계도 어려운 개인파산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대출금치 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 등의 정부조치가 3월말 종료되거나 경기회복 지연시 개인파산도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지방법원 집계결과 개인파산은 2017년 480건, 2018년 565건, 2019년 582건, 지난해 71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이후 생활고로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7년 843건, 2018년 987건, 2019년 1189건, 지난해 1177건으로 증가세속에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감소 대신 개인파산 증가 현상을 지역경

기 불황의 결과로 꼽는다. 개인회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월급이 차 벌지 못하는 취약계층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실물경제 지표상 드러난 지역경제 침체 여파에 막혀버린 수입으로 최소 생계도 어려운 개인파산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대출금치 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 등의 정부조치가 3월말 종료되거나 경기회복 지연시 개인파산도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지방법원 집계결과 개인파산은 2017년 480건, 2018년 565건, 2019년 582건, 지난해 71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이후 생활고로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7년 843건, 2018년 987건, 2019년 1189건, 지난해 1177건으로 증가세속에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감소 대신 개인파산 증가 현상을 지역경

뉴스-in

원 지사 정확된 분노 재이용수 들이켜

의회·집행부 간 언쟁 벌여
○4월 출범을 앞둔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정원을 놓고 강성민 제주도의원과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언쟁을 벌여 눈길. 강성민 의원은 24일 제주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행안위 4차 회의에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도중 자치경찰위원회 정원에 자치경찰 8명, 국가경찰은 3명이 배정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원회용 제주지사가 검사 출신이어서 국가 경찰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한마디. 이에 대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이 "인력 모둠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 이상민기자

원 지사는 양돈농협 관계자 및 농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장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가축 분뇨가 정화되는 과정을 확인. 원 지사는 "악취 저감을 위해 자정화공장을 운영하며 분뇨를 정화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없으면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농가와 같은 목표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 강대해기자

약취 저감 제도 개선 노력

○원회용 제주도지사가 24일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자원화공장을 방문, 정확된 분뇨 재이용수를 직접 마시며 분뇨 액비와 재이용수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

백신접종 차질없도록 당부

○안동우 제주시장이 75세 이상 어르신 등의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과 관련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안 시장은 24일 시청 각 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 및 주간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사업 계획과 코로나19 방역 지도 점검 등 현안을 논의.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4월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실시될 예정인 만큼 사전점검 및 절차 안내와 고령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등 차질없는 준비를 강조. 이윤형기자

편집국 25시

벚꽃에 잊혀진 코로나19



이 태 운
경제산업부 기자
lty9456@halla.com

같은 날 제주도 소재 제주종합운동장 인근 일대와 삼도1동 전농로 등 도내 벚꽃 명소마다 상춘객들이 몰렸지만, 주변 어디에도 체온계, 손 소독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축제를 취소한다 해도 봄철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어 코로나19 방역 구멍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관광협회가 집계한 관광객 내도 현황을 보면 주말을 앞둔 지난 19일에는 3만4578명, 20일 3만2550명, 21일 3만3747명 등 사흘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 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맞춰 제주지역은 나들이하기 좋은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일에도 3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갈 길은 멀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필요할 때다.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제주지역 봄 축제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벚꽃이 만개한 장소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취재자 방문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에는 벚꽃과 유채꽃이 만개해 있었고, 상춘객들은 연인 가족과 함께 제주의 봄 정취를 느끼고 있었다. 연인으로 보이는 방문객은 어깨동무를 하곤 마스크를 슬쩍 내려 벚꽃과 유채꽃이 활짝 핀 녹산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에 나서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다음 달 4-8일 유채꽃 축제가 비대면 행사로 축소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축제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듯 보였다.

부 고

고흥학(前 현대자동차 지점장) 어머니 거창신씨 동순(향년 92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24일 13시 40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1년 3월 26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3월 27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층 2빈소
▶장 지: 양지공원→충훈묘지
아들 고홍학 며느리 홍미영
딸(고)고영자 사위 임영준
손자 고홍석(재원본)
손녀 고원희
외손자 고지성
외손녀 김현주
※ 연락처 : 고흥학 010-3699-5300
홍미영 010-9839-2219
고길범 010-4769-3723
김병돈 010-2354-7423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방 장순우(1978.3.7.생)
*최후주소 : 제주도 전농로 43(삼도일동)
상기자는 2021년 1월 1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3월 17일 제주지방법원 2021노단12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 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도 전농로 43(삼도일동)
2021년 3월 2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장 치 희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도정소식
2021년도 주택가액(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1. 3. 19. ~ 4. 7. / 열람: 시청 세무과, 읍·면·동
☎ 제주시 728-2341-4, 서귀포시 760-2351-3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신청 연장안내
○ 지원대상 : 20.11.30이전 개업하여 영입중인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정부 3차 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 지원금액: 업종별 50만원 ~ 250만원 선별지원금
○ 온라인 접수 : 2. 1.(월) ~ 4. 30.(금) / happydream.jeju.go.kr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휴·폐업자) 접수기간 연장
○ 지원대상 : 20. 3. 1. 이후 공고일(21. 1. 29) 이전 휴·폐업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휴·폐업중이며 사업장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상공인
○ 지원금액: 50만원
○ 접수기간 및 장소 : 2. 15.(월) ~ 3. 31.(수) / 읍면동 주민센터
* (당초: 2.15~3.12(금)/제주시민회관, 서귀포시청 제2청사)
○ 전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상공인지원과(☎064-710-3076)
제주사랑 경제일자리과(☎064-728-2792),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064-760-2614),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담당
제주지역화폐(탐나는진,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안내
□ 탐나는진,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 단속기간: 2021. 3. 18. ~ 3. 31.
○ 주민신고: ☎ 064-710-2526-7
○ 법적근거: 「지역사랑상품권법」, 「보조금법」
○ 단속대상: 환전내역 모니터링 및 분석으로 대상 특정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조치계획: 부당득 환수 및 경중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등
※ 지역화폐 탐나는진 할인을 악용하여 차익을 본 경우, 가맹점 취소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 가입대상 : 도내에 신고 된 모든 농어촌민박
○ 가입시기 : 농어촌민박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2021년 12월 10